

Sports

# 광주FC 김동섭 '홍명보호' 재승선

우즈벡 출전 22명 확정...구자철 등 핵심멤버 대거 불참

광주 FC '공격의 핵' 김동섭이 홍명보호에 재승선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7일 서울을 펼칠 경기장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에 참가할 올림픽 대표팀 선수 명단 22명을 발표했다.

해외파로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3명이 포함됐고, 국내파 19명 중 K리그 선수는 12명, 대학 선수가 7명이다.

구자철(볼프스부르크)과 윤빛 가람(경남), 홍정호(제주) 등 홍명보호의 기존 주축 선수들은 같은 날 플란드와 평가전을 치르는 A1대표팀에 소집돼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서 빠졌다.

홍 감독은 대신 지난 6월 요르단과의 2차 예선에 기용했지만 지난달 오만과의 최종예선 1차전에서 제외했던 공격수 김동섭(광주)을 다시 불러들었다.

스트라이커 배천석(벳셀고베)과 미드필더 한국영(소나 벨마레)·정우영(교토상가) 등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올랐다.

미드필더 윤일록(경남)·고무열(포항), 수비수 윤석영(전남)·김태환(서울)·오재석(경원) 등 지난달 오만과의 최종예선 1차전에서 뛰었던 K리그 기대주들도 그대로 이름을 옮겼다.

김경중(고려대), 백성동, 장현수(이상 연세대) 등 홍명보호와 U-20 대표팀에서 활약해온 대학 선수들 역시 홍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김민우(사간도스)와 조영철(나이타) 외에 골키퍼 하강진(성남), 김현성(대구) 등 지난달 오만과의 1차전에 뛰었던 선수들은 소속 구단에서 차출에 난색을 표해 이번 소집에 빠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1월 이후 열리는 최종예선 원정 경기에는 해당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해당 구단 측이 알려왔다"고 전했다.

올림픽 대표팀은 내달 4일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우즈베키스탄전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김동섭〉

# 지동원 첫 도움

팀은 1-2 패배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는 지동원(20·선덜랜드)이 데뷔 후 처음으로 도움을 기록했다.

지동원은 27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캐로우로드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2011-2012 시즌 6리운드 원정경기에서 0-2로 뒤진 후반 41분 카어런 리쳐드슨의 만회골을 도왔다.

그는 폐널티지역 중앙에서 자신에게 온 볼을 차지 없이 폐널티지역 외곽에 있던 리쳐드슨에게 다시 보냈다. 리쳐드슨은 상대 수비를 허물어내는 지동원의 삼각패스를 강하게 끌어 노리치의 골네트를 훔쳤었다.

지동원은 지난 11일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두 경기만에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그는 이날 후반 22분 세바스티안 라르손과 교체돼 그라운드로 들어가 후반 추가시간까지 28분을 소화했다. 지동원은 이날 직접 골 육심을 내기보다는 긴 크로스나 짧은 패스로 둘로에게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선덜랜드는 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된 약체 노리치에 1-2로 졌다.

/연합뉴스

# 광주 FC, 창단 첫 해 겸경사

신인왕 후보 이승기 등 국가대표 4명 배출

신생팀 광주 FC가 잇달아 날아온 낭보에 겸경사를 맞았다.

광주의 '신인왕 후보' 미드필더 이승기가 26일 조강래 감독의 부름을 받으면서 태극 마크의 꿈을 이룬데 이어, 27일 발표된 월드컵대표팀 명단에는 공격수 김동섭(광주)을 다시 불러들었다.

김동섭은 지난 소집 때는 발목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오르지 못했지만 컨디션 이 제궤도에 오르면서 내달 7일 우즈베키스탄과

의 친선 경기에 출전한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지난 25일 부산과의 26라운드 경기에서 2-2의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며 13위로 내려 앉는 등 순위싸움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창단 첫해 4명의 국가대표를 출하하며 선수 하나는 풍년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온두스리파트너피의 친선 경기에서 주장 박기동이 모습을 드러냈고, 수비수 이승도 올림픽대표팀에 다녀오면서 국가 대표 선수 명단에 합류했다.

U-14 국가대표까지 포함하면 광주의 국가대표는 모두 5명이다.

광주의 유소년 클럽인 광덕중의 공격수 손민우가 26일 U-14 한일 교류전 최종명단에 합류하면서 광주국가대표팀 모친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는 대표할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탄생하면서 광주는 풍성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월드컵대표인 이승기는 두 경기 연속골에 힘입어 27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26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시체육회-건강관리협회 지정병원 협약

광주시체육회가 26일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의실에서 건강관리협회와 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민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 및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은 "광주시 소속선수들이 다양한 건강정보와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 공이야"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헤타페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에서 헤타페의 카다 디아즈(오른쪽)가 이발로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 산행 안내

관광협회 광고규정상 (해외 및 섬)은 계약과 불가합니다!

또한 신체에 다른 어려움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은 반드시 예약하세요!

9월 29일(목)

▶빛고을목포문화재단 진도군 청간동 9월 29일(목) 9:00~16:00 빛고을문화재단

▶광주광역시립박물관 충장·황왕·청간·청암 칠갑산 10월 2일(일) 9:00~16:00 광주광역시립박물관

▶광주광역시립박물관 충장·황왕·청간·청암 10월 2일(일) 9:00~16:00 광